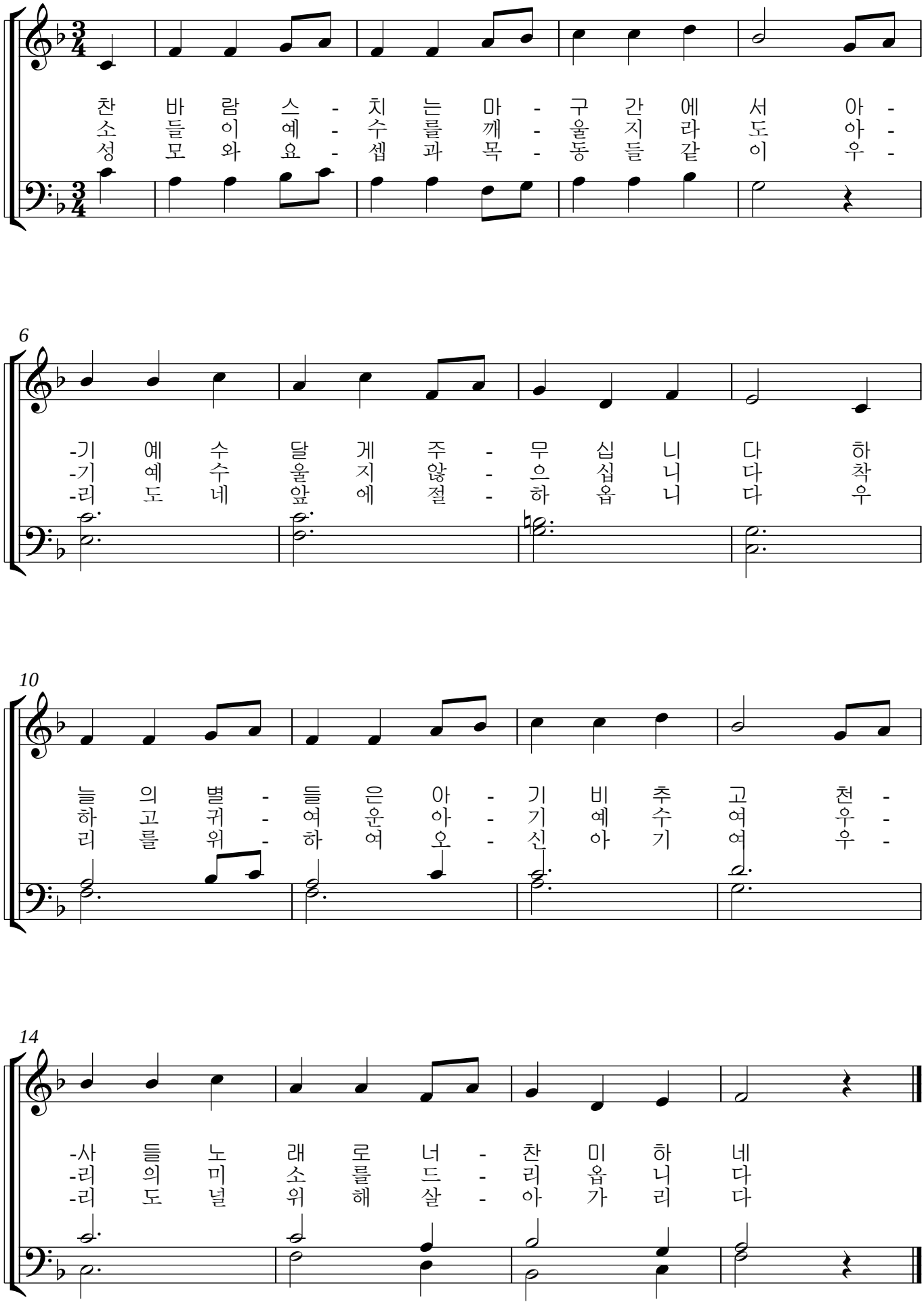110. 찬바람 스치는 마구간